

## SERMON EASTER DAY 2016

### Acts(사도행전) 10:34-43, Luke(누가복음) 24:1-12

예수님 부활 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경외감, 경배, 큰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은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부활했습니다. 어둠의 능력, 죄의 그림자,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빛의 능력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부른 부활절 예배를 저는 기억 합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찬양소리는 높게 울려 퍼집니다. 정말 저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도 슬픔으로 지쳤고, 상실, 두려움 그리고 부서진 희망들로 지쳐있었습니다. 우리들 중 몇몇 분들도 아마 우리 미래에 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멀게 느껴져서, 또는 가깝게 그러나 아직까지 거리감으로, 그때 예수님의 친구들 이었던 것처럼 불안함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 아주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 상처 난 본성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혼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절 첫날 아침 일어난 일에 증거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천년 동안, 사람들은 부활절 첫날 발견 된 것과, 부활절 전에 일어났던 것들이 변화 시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에 다른 모든 것과 함께 편안한 어떤 종류에 들어 갈 수 있을 만큼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 메시지는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적막한 동행을 위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연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누가복음은 할렐루야 또는 나팔소리 울리는 승리의 노래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에 승리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압니다. 그 노래들은 사람들의 입술에 나중에 다시 불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용한 날 우리는 뒤돌아 봅니다. 부활절 토요일, 안식일, 한계적 공간을 지난 끔찍한 공허함과 충격, 두려움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 날지 모르는 완전한 공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여성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 모여있었던 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상실과 혼돈과 함께 모였습니다.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조용한 대화와 여명의 빛 안으로 출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 했던 그분의 몸을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누가는 조용하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그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동굴 무덤으로 찾아가 무덤으로 들어간 여성들의 용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그것은 큰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꽤 부드럽게 이야기 되어집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섰을 때 드라마의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압도적 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산에서 변형 하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여성들은 이 거룩한 증거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설명은,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나타난 천사들이 여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것에 관해서만 상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여성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슬픔과 혼돈은 그들이 멈추고 그들의 상처 난 마음을 그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께로 돌려 드렸을 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필요했던 모든 것 입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날 일어났던 것의 진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아주 가깝게 참여한 여성들에게 일어난 것에 관한 아주 특별한 것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여성들이 아니라 그 여성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뿐만

아니라, 중요하게도, 다른 여성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이 여성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남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는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남성들은 그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번역본에서 해석하듯이 “쓸데 없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의 번역본은 “nonsense” 터무니 없는, 번역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이 이 감정적인 여성들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 없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급하고 충동적인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슬픔, 죄의식, 그리고 부끄러움을 경험 하며 그의 마음에 어떤 무거운 꿈틀거림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무시 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금해 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을 부분입니다. 이 여성들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무엇을 기억하나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기억 할 것 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 각자의 이야기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 시켜줍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잊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과 어려운 시간을 고통스럽게 통과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놀랍게도 해결되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난처한 상황으로부터 움직일 수 없도록 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것이; 기대하지 않은 만남 또는 전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고 그것이 변화를 시키는지; 어떻게, 지속적인 상실과 고통이,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웬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앎으로서,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느껴질때, 우리는 이끌림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위를 보았을 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변화 되기 전에, 갑자기 어떤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전이라 기억합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문제가 있었고 저는 아침에

일어 나는 것과 또 다른 날을 맞이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보았고 작은 무지개가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 밖의 나뭇가지로부터 빗방울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잡았습니다. 부활의 삶. 조용한 부활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해 하며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또는 편안한 "정상적인" 패턴에 끼어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들을 그리고 서로서로를 기억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그것 만으로도 여기에 있는 것이 충분합니다, 궁금해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서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특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의 동력이 부활한 생명을 계속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 보고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패턴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압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달되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할렐루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의 신앙에 중심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게 하나요?" 우리가 우리주위의 세상을 볼 때 무엇이 달라지게 하나요, 터무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단지 무시 할 수 있나요. 삶은 종종 어떤 범주 안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궁금해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텅 빈 무덤을 무심히 보고 떠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아마 어느 것도 기억하거나 궁금해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이야기가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많은 예수님의 삶을 끄집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변화를 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요한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 없는 것에서 의미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여성들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체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단지 그들이 본 것과 기억하는 것을 연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 났나요, 그것은 터무니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의 여정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고, 잔혹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의 진리는 계속적으로 진실했습니다. 아마 그 여정이 다시 시작한다면 얼마나 특별 할 까요. 지금, 그 어떤 때 보다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 그가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 그가 강조한 풍부한 삶의 모든 것; 그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 주위를 위해서 그들을 부른 모든 것;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삶에 관해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했을 때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단계가 되었습니다. 고요한 부활이야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 내려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기억했습니다 옳고 진실되게 보였고, 정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조 안에, 우리는 역시 그것을 압니다. 오늘 다르게 만든 것은, 비록 세상은 그것을 터무니 없게 보아도,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안에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믿습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의미, 용서의 의미, 정의를 기초로 한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압니다. 우리는 수락과 사랑을 위한 갈망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달라지나요? 믿음의 삶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만약 함께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 난 세상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아 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신 병원 원목 이었을 때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거의 말을 할 수 없거나 때로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그들은 좋지 않아 보였고, 삶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의 희망이 되어 주어도 될까요?" 항상 그들은 "네, 그러세요." 라고 반응합니다. 우리가 뒤를 생각할 것을 상기 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전에 셀 수 없는 세대들과 우리들에게 누구셨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상처를 통해서 치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밤의 어두움 후에 새로운 따뜻함이 태양의 빛들이 비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놀란 여성들의 용기의 감정들을 상상할

때,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궁금해 하던 베드로와 아마 그들의 반응들과 함께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태양이 계속해서 빛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그 태양의 따뜻함이 우리 위에 퍼지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전 우주에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더 하는 것, 갱신하는 삶은 다시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기억함으로 온 세계에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